



UNIST 슈퍼컴퓨팅센터장 김성엽

UNIST 슈퍼컴퓨팅센터가 첨단연구 선도기관, 네트워크 중추기관, 산학연 협력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용자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슈퍼컴퓨팅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슈퍼컴퓨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과학기술이자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미래기술입니다. 극대/극소화, 복잡/융합화로 특징되는 첨단과학기술에는 실험으로 분석할 수 없는 도전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들 문제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과학 분야들이기 때문에, 과학 선진국에서는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하여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해일/지진/방사능 확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오직 슈퍼컴퓨터를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1988년 슈퍼컴퓨터가 국내에 최초 도입된 이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슈퍼컴퓨터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음에도 아직도 소수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통해 슈퍼컴퓨터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소개 및 국내외 소식 등의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슈퍼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UNIST 슈퍼컴퓨팅센터가 연구자들을 위한 첨단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친숙한 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뉴스레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UNIST 슈퍼컴퓨팅센터장 김성엽